

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추모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넘

어 문화, 체육 등 폭넓은 상호 협력 방안을 담았던 10·4 남북공동선언은 관문점 선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남북관계뿐 아니라 노무현

"10·4남북공동선언, 평화 체계를 틀 마련" "盧정신으로 국가 대개혁...정치권 화답해야"

전 대통령이 염원하던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됐고 가야 할 길이 됐다"며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차별과 반칙 없는 새 세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숙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적폐청산 국가 대개혁을 향한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고 특히 협치와 소통이 실종된 암울한 정치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노무현 정신으로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협치와 소통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서거를 깊이 애도한다"며 명복을 빌었다. 그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전 대통령 9주기를 추모하는 성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6·13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박매호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합동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당 전덕영 광주시장·박매호 전남지사 후보 "차별적 정책 발굴해 지역발전 견인"

6·13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 박매호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3일 지역발전을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은 시대적 조류이다"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중요로운 공약을 위해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완료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걱정없고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무등산과 광주천, 영산강에 이르는 생태벨트를 구축하고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만들

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광주정신 세계화 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남지역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가 크다"며 "전남의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윤러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 및 농·생명 치유복합단지, 동물복지형 친환경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해안 간선도로 개설, 동부권에 제2행정청 설치 등은 국토균형발전과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

민주평화당 김종배 후보 광주시장 불출마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1주일만에 출마의 꿈을 접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중당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역사 속에 우뚝 세워보고 싶은 소망으로 출마를 결심했지만, 현실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1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이 너무 무기력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광주시정에 전 두환 정권 협력자의 사진이 걸리지 않

자신 SNS 통해 불출마 의지 밝혀... "현실 한계 높은 벽 느껴"

민중 이용섭·바른 전덕영·정의 나경채·민중 윤민호 4파전

의 높은 벽을 느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장 후보로 중앙당에서 의결된 뒤에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신도 없고 쓰나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남도청 최후 항전 때 계엄군에게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5·18 사형수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15대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김산 전 의장 전략공천

정영덕 "법원에 가져분신청...무소속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전남 무안군수 후보로 김산 전 무안군의회장을 전략공천했다.

23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군의장을 무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4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등 공천일정이 촉박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김 전 의장을 전략공천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복교 문태고와 목포대학교를 졸업한 김 전 의장은 무안 운남출신으로 승달장학회 이사와 5·6대 무안군의회장과 6대 군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앞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지역 내에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사생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영덕 예비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음해한 특정 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해 공천 무효를 결정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13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김산 후보와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 무소속 김재훈·김팔봉·안기선·인창진·정영덕 후보 등 7명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관위에서 진행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은 31일부터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민주당 공천 최악" 최진 남구청장 후보 무소속 출마선언해

더불어민주당 공천물에 반발한 6·13 지방선거최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22만 남구민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동안 민주당에 몸 담았지만 당은 경선도 치르지 않고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단수공천을 했다"며 "이번 단수공천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명분과 절차, 인물 등 모든면에서 최악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기 앞서 10여일 동안 지역 곳곳을 돌면서 민심투어를 했고 남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무거운 사명감을 안겼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와대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거치며 남구를 단기간에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인과 공약을 갖고 있다"며 "결손하고 낮은 자세로 남구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